

서두름 행동과 A형 행동의 관계*

박 선 진

이 순 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서두름 행동의 5요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두름 행동과 A형 행동의 관계를 바탕으로 서두름 행동의 5요인의 특성을 밝히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207명이 서두름 행동 질문지와 A형 행동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A형 행동 질문지는 A형 행동 및 성격을 측정하는 기존 문항을 바탕으로 총 136개 문항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6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29개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A형 행동의 구성요인으로 성공추구, 인내부족, 실패불안, 과제몰입, 활동성, 민첩성이 나타났다. 서두름 행동 요인분석 결과, 서두름 행동은 기존 연구와 동일한 5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두름 행동과 A형 행동의 상관분석 결과,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성공추구, 실패불안, 과제몰입, 민첩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인내심부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성공추구와 활동성 및 민첩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성공추구, 인내부족, 실패불안, 민첩성과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서두름 행동, A형 행동, 신경증, 성취동기

* 이 논문은 2011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순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snchul@chungbuk.ac.kr

서두르는 것은 일을 빨리 해치우려고 급하게 바빠 움직이거나 어떤 일을 예정보다 빠르게 혹은 급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서두름 행동은 외적으로는 단순히 행동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일을 빨리 해치우려고, 예정보다 빨리 혹은 급히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은 속도를 높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서두름 행동에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 행동의 속도와 정확성은 trade-off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두름 행동에 반영된 목표달성은 최고 목표달성이 아닌 최적의 목표달성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순철과 박선진(2008)은 서두름 행동을 속도를 높여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서두름 행동을 새롭게 정의한 이순철과 박선진(2008)은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먼저, 서두름 행동은 크게 다섯 가지 요인에서 민감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의 결합에 의해서 서두름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고나 실수로 이어지는 특성이며 나머지는 기한내 임무완수, 목표달성으로 이어지는 특성이다.

서두름 행동이 민첩하고 재빠른 행동,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 이와 관련된 수행의 성패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서두름 행동과 A형 행동 간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형 행동은 A형 성격을 가진 개인이 보이는 행동특성으로 여기에는 행동의 민첩성, 경쟁적인 성취추구, 시간에 대한 조급함과 느린 것에 대한 인내심 부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등의 특성을 들 수 있다(Galss, 1977; Matthews, 1982; 조선미, 이형초, 박현진, 서지영, 홍성목, 1995에서 재

인용).

이순철과 박선진(2008)은 A형 행동을 바탕으로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추리한 바 있다. 이들이 A형 행동을 바탕으로 추리한 특성은 서두름 행동도 사고나 실수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무완수나 목표달성과 같은 결과로도 이어지는 특성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A형 행동을 바탕으로 언급한 서두름 행동의 특성에는 서두름 행동의 다섯 가지 구성요인의 특성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당시 연구자들의 관심은 서두름 행동의 2가지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A형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가지는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서두름 행동

서두름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들(이순철, 박선진, 2008; 김동우, 박선진, 이순철, 2009; 박선진, 2011)의 보고에 의하면, 서두름 행동에는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있다.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하고 있는 일이 많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할 때처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처럼 심리적 불편감을 야기하는 누군

가와 함께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혼자 밤길을 걷거나 한적한 곳에 혼자 있는 바와 같이 낯선 환경에 혼자 노출된 경우에 나타난다.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지금 하는 일이 귀찮은 일이거나 지루한 것처럼 재미없고 지루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끝으로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선물을 선착순으로 주거나 공짜로 나눠주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서두르면 보상이 있다는 기대를 주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순철과 박선진(2008)은 다섯 요인의 조합에 의해서 서두름 행동을 실수나 사고로 연결되는 확인생략행동과 수행촉진이나 과업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취추구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서두름 행동 가운데 확인생략행동은 교통행동 가운데 실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개인 특성으로 나타났다(김동우 등, 2009). 그리고 단순과제 수행시, 지루함으로 인한 서두름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서두름 행동의 성취추구행동이 과제수행 속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박선진, 이순철, 2009). 이렇게 선행연구를 통해 서두름 행동의 두 가지 특성과 운전행동이나 단순과제 수행 등 구체적인 행동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A형 행동

A형 행동(Type A behavior pattern)은 심장질환 발생과 관련하여 주목된 특성이다. 심장 전문의인 Friedman과 Rosenman(1974)에 의하면, A형 행동은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A형 행동의 사람은 시간압박에 매우

민감하고, 성급하며, 과도한 경쟁심을 가지고, 적대적이며, 쉽게 화를 낸다. 이들은 “좀 더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관여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후 A형 행동의 특성에 대한 보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Galss(1977; 조선미, 이형초, 박현진, 서지영, 홍성목, 1995에서 재인용)와 Matthews(1982; 조선미 등, 1995에서 재인용)은 A형 행동의 중심특성으로 “일을 할 때 그것을 도전적인 과제로 받아들이며 경쟁적으로 성취를 추구하고, 시간에 대한 조급함과 느린 것에 대한 인내심 부족, 일에 대한 몰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을 언급하였다.

A형 행동의 특성과 구성요인은 서두름 행동을 A형 행동의 한 요인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Smith와 Ruiz(2002)는 A형 행동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반응적인 기질의 도화선 역할을 하는 분노와 적개심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A형 행동의 특성은 적개심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서두름 행동의 특성은 시간적 압력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A형 행동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Glass(1977)는 A형 행동의 구성요인으로 성취추구(Achievement Striving), 시간적 긴박함(Time Urgency), 적개심(Hostility)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Dembroski, MacDougall, Williams, Haney와 Blumenthal(1985)은 시간압력(Time Pressure), 과한 업무 행동(Hard-Driving Behavior), 활동민첩성(Speed of Activity), 경쟁심(Competitiveness), 화를 참지 못함(Anger-Impaiience)과 같은 5가지 특성을 A형 행동의 구성요인으로 기술하였다. 이후, Bleuen과

Barling(1990)은 A형 행동의 구성요인을 성급함(Impatience-Irritability)과 성취추구(Achievement Striving)라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A형 행동의 구성요인을 탐색함으로써 A형 행동의 중심특성으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점차 검증될 수 있었다. 일례로, 경쟁적으로 성취를 추구한다는 A형 행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A형 행동이 작업수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Jamal(1985)은 A형 행동과 수행의 양은 관련 없지만, A형 행동과 수행의 질 간에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Lee, Earley와 Hanson(1988)은 A형 행동과 수행 간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A형 행동의 구성요인을 성급함과 성취추구로 구분한 Bleuen과 Barling(1990)은 A형 행동이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성급함 요인의 점수가 높은 직원의 경우 직업만족도는 낮고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취추구가 높은 직원은 영업실적과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leuen과 Barling(1990)이 A형 행동과 과제수행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구성요인을 구분하여 접근하데 비해 선행 연구들(Jamal, 1985; Lee, Earley, & Hanson, 1988)은 A형 행동을 전반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A형 행동의 구성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A형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다양한 도구들이 존재하여 이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A형 행동 수준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형 행동의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A형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을 수집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A형 행동의 구조를 탐색할 계획이다.

신경증과 성취동기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과 성취동기를 A형 행동의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신경증(Neuroticism)은 성격 5요인 가운데 하나로 정서적 불안정, 환경에 대한 민감성, 불안감, 피로감, 긴장의 정도를 나타낸다. 유태용과 민병모(2001)에 의하면 성격 5요인 가운데 신경증은 수행준거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연구장면에 관계없이 수행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수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정도와 작업에서의 낮은 수행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이다. 이순철과 박선진(2008)은 실수나 사고로 이어지는 서두름 행동을 변별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경증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A형 행동의 요인들과 신경증의 관계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구성되는 A형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성취동기는 과업 및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 가운데 하나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려운 일을 성취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는 등 성취 및 성공에 중요한 특성이다(McClelland & Boyatzis, 1982; Muchinsky, 2003에서 재인용). 그리고 성취동기 수준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임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데, 성취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 과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성취동기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선호하며 더 나은 수행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경증과 마찬가지로 A형 행동의 구성요인들의 특성 및 각 구성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성취동기를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서두름 행동의 선행연구들(이순철, 박선진, 2008; 김동우 등, 2009; 박선진, 이순철, 2009)은 서두름 행동의 2가지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수와 사고로 연결되는 서두름 행동과 과업추진 및 목표달성으로 이어지는 서두름 행동의 존재와 그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초기에 발견된 다섯 가지 서두름 행동 구성요인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접근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동전의 양면 같은 서두름 행동의 두 가지 특성은 초기 다섯 가지 구성요인의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서로 다른 서두름 행동을 만들어내는 다섯 가지 구성요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A형 행동을 활용하여 서두름 행동의 다섯 가지 요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형 행동은 이순철과 박선진(2008)의 연구에서 서두름 행동의 두 가지 특성과 관련되어 언급된 개인의 특성이며, 최근 연구자들(Glass, 1977; Dembroski, MacDougall, Williams, Haney, & Blumenthal, 1985; Bleuen & Barling, 1990)이 A형 행동의 구성요인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서두름 행동의 구성요인이 가지는 특성 및 요인들 간

차이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형 행동의 구성요인을 추출하여 각 구성요인과 서두름 행동의 관계를 통해 서두름 행동의 각 구성요인이 가지는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응답자

본 연구에 참가한 응답자는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101명, 여성은 106명 총 207명이 조사에 응해주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5.29($SD=6.31$)세였으며, 연령범위는 만 18세부터 59세로 다양했지만, 연령대별 응답자 규모가 균등하지 않았다.

연령대별 응답자 규모를 살펴보면, 19세 이하 집단이 12명, 20-29세 집단은 162명, 30-39세 집단은 24명, 40-49세 집단과 50-59세 집단은 각각 7명과 2명이었다. 20-29세 집단이 전체 응답자의 78.3%를 차지하여 응답자가 주로 20대에 편중되어 있었다.

도구

서두름 행동 질문지

이순철과 박선진(2008)이 발표한 서두름 행동 질문지를 사용하여 서두름 행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27개 문항 가운데 기존 연구에서 요인 적재치가 낮은 문항들을 제외한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부터 ‘매우 서두른다’까지 5점 리커트 양식으로 반응하였으며, 각

반응은 1점부터 5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22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4$ 로 산출되었다.

A형 행동 문항

A형 행동의 중심특성을 바탕으로 A형 행동을 측정하고 A형 행동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현재 A형 행동을 측정하거나 A형 행동의 중심특성을 평가하는 척도 및 문항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Jenkins Activity Survey 개정판 문항(Jenkins, Zyzanski, & Rosenman, 1971), 기질차원 척도 개정판(Winderl, & Lerner, 1986), Eysenck의 리커트 A형 성격검사(Eysenck, & Fuler, 1983), Framingham A유형 행동검사(Haynes, Levine, Scotch, Feinleib, & Kannel, 1978)의 문항을 수집하고 중복되는 문항을 제거하여 총 136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방식은 5점 리커트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반응할 수 있었다. 각 반응은 1점부터 5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36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94$ 로 나타났다.

신경증 측정

성격의 5요인 가운데 하나인 신경증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태용, 이기범과 Ashton(2004)이 번안한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이하 IPIP: Goldberg, 1999)을 사용하였다. IPIP는 개인의 성격을 5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당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IPIP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각 반응은 1점부터 5점

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0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9$ 였다.

성취동기 척도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창열(1986)이 제작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Likert 양식으로 응답자들은 21개 문항에 대해 각각 ‘절대 반대한다’부터 ‘절대 찬성한다’까지 반응하였다. 응답자 반응은 1점부터 5점으로 채점하였다. 성취동기 척도의 21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8$ 로 나타났다.

결 과

서두름 행동 5요인 확인

서두름 행동 질문지의 22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4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축요인추출과 오블리민 회전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결과 다섯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것은 전체변량에 대해 51.4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표 1).

첫 번째 요인은 하루에 마무리 해야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 때, 처리해야 하는 일이 한꺼번에 여러개 생기는 경우를 포함하여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었다.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설명변량은 22.27%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싫어하는 사람과 이야기 할 때, 내키지 않은 친구와 만나는 경우 등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은 불편함

표 1. 서두름 행동 요인 분석결과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10	하루에 마무리 해야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때	.848				
20	처리해야 하는 일이 한꺼번에 여러개 생긴 경우	.840				
17	하고 있는 일의 양이 많을 때	.792				
21	시간에 쫓기고 있을 때	.758				
4	한꺼번에 해야하는 과제의 양이 많을 때	.721				
15	시간을 다투는 비상상태에서 일하는 경우	.612				
22	싫어하는 사람과 이야기 할 때		.776			
11	싫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643			
9	내키지 않은 친구와 만나는 경우		.622			
5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할 때		.492			
1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마주쳤을 때		.578			
19	지금하는 일이 귀찮은 일인 경우			.755		
3	좋아하지 않은 일을 마지못해 할 때			.703		
12	현재하고 있는지루할 때			.522		
2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423		
16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줄때				.925	
7	공짜로 나눠주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을 때				.816	
14	백화점 세일기간에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경우				.574	
6	혼자 밤길을 걸을 때					.796
8	뒤에서 누군가 따라 올 때					.734
18	한적한 곳에서 혼자 걸을 때					.331
13	낮선 곳에 혼자 있을 때					.165
고유치		4.90	2.48	1.87	1.23	.83
설명변량(%)		22.27	11.26	8.51	5.61	3.76
신뢰도(Cronbach's α)		.89	.76	.84	.70	.70

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으로 설명변량은 11.26%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지금 하는 일이 귀찮을 일

인 경우와 좋아하지 않은 일을 마지못해 할 때 등을 포함한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으로

8.51%를 설명하고 있었다.

네 번째 요인은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줄 때, 공짜로 나눠주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을 때를 포함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상 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었다. 이 요인의 설명변량은 5.61%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혼자 밤길을 걸을 때, 뒤에서 누군가 따라 올 때 등을 포함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설명변량은 3.76%를 보고하였다..

A형 행동의 6가지 구성요인

A형 행동을 측정하는 136개 문항을 바탕으로 A형 행동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축소를 목적으로 회전없이 주성분분석을 진행하여 공통성이 .4 이하인 문항을 제거한 결과 136개 문항 가운데 29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공통성이 .4보다 큰 29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방법은 주축요인방식으로 추출하였으며 오블리민 방식으로 회전하였다. 그 결과, 전체 설명변량이 61.93%인 6가지 구성요인이 나타났다.

요인 1은 총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설명변량은 24.79%로 나타났다. 요인 1을 구성하는 문항은 ‘야망을 가지고 있다’, ‘야심이 있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사회적 출세를 열망한다’ 등 사회적 성공을 열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요인 1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이 야망, 사회적 성공, 경쟁을 담고 있기에 요인명을 ‘성공추구’로 정하였다. 이것은 Glass(1977)가 언급한 구성요인 가운데 성취추구, Dembroski 등(1985)이 언급한 경쟁심과 상응하는 특성이었다.

요인 2는 총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전체 변량 가운데 11.76%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 2를 구성하는 문항은 ‘식당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는 것이 싫다’, ‘줄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처럼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거나 참지 못하는 행동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요인 2의 명칭을 ‘인내부족’으로 정하였다. 즉,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특성으로 이것은 Dembroski 등(1985)의 화를 참지 못함과 유사한 맥락의 특성이었다.

요인 3은 ‘일을 하다 보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일을 마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라는 3개 문항으로 목표를 정해진 시간 내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관련되어 있었다. 요인 3의 설명변량은 8.90%였으며, 문항의 내용이 목표달성에 대한 불안을 대변하기에 ‘실패불안’이라 칭하였다. 이것은 Glass(1977)와 Dembroski 등(1985)이 각각 시간적 긴박함과 시간압력이라고 명명한 특성과 일관되었다.

요인 4는 ‘하던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 ‘한번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 ‘한가지 일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한다’를 포함하여 총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의 7.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에 대한 몰입이나 집중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집중력과 노력의 특성을 담고 있기에 요인 4의 명칭을 ‘과제몰입’으로 정하였다. 이것은 Dembroski 등(1985)이 주장한 A형 행동 구성요인 가운데 과한 업무 행동과 유사한 특성이었다.

요인 5는 ‘많이 많다는 얘길 자주 듣는다’, ‘스스로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4.93%를 설

표 2. A형 행동 구성요인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75	야망을 가지고 있다	.843					
76	야심이 있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727					
57	사회적 출세를 열망한다	.604					
4	경쟁을 즐기고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	.599					
44	매우 경쟁적이다	.517					
102	일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경쟁적이다	.477					
69	식당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는 것이 싫다		.856				
114	줄서서 차를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853				
8	기다리는게 어렵다		.796				
5	계산대 앞에 줄 서 기다리면 짜증이 난다		.767				
80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할 때 안절부절못한다		.592				
104	일을 하다 보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742			
19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696			
101	일을 마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691			
124	하던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				-.853		
128	한번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				-.809		
127	한가지 일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한다				-.780		
84	한번 일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한다				-.764		
48	무슨 일을 하든지 전력을 다한다				-.477		
112	정열적으로 일한다				-.449		
42	말이 많다는 얘길 자주 듣는다					.829	
66	스스로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28	
10	제일 친한 친구들은 내가 너무 활동적이라고 한다					.722	
41	많이 움직인다					.688	
105	일을 할 때 빠르다						-.811
22	다른 사람보다 일을 빨리 마친다						-.713
135	항상 최상의 속도로 움직인다						-.444
132	항상 서두른다						-.347
55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주한다						-.346
고유치		7.19	3.41	2.58	2.15	1.43	1.20
설명변량(%)		24.79	11.76	4.90	7.40	4.93	4.14
신뢰도(Cronbach's α)		.79	.85	.69	.83	.77	.69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5를 이루는 문항들은 평소 활동 에너지 수준의 과소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요인명을 ‘활동성’이라 하였다.

요인 6은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전체변량의 4.14%를 설명하고 있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많이 움직인다’, ‘일을 할 때 빠르다’, ‘다른 사람보다 일을 빨리 마친다’ 등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요인 6의 문항은 일을 할 때 민첩하게 움직이는 행동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이기에 요인명을 ‘민첩성’이라 하였다.

요인 5와 요인 6은 Dembroski 등(1985)이 언급한 활동 민첩성과 관련된 특성이 평소와 일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A형 행동과 신경증 및 성취동기의 관계

A형 행동의 구성요인들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신경증 및 성취동기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A형 행동의 구성요인 가운데 성공추구는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2, p < .001$). 인내부족은 신경증과 정적 상관이 보였다($r = .33, p < .001$). 실패불안은 신경증, 성취동기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신경증 $r = .43, p < .001$; 성취동기 $r = .17, p < .05$), 과제몰입은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49, p < .001$). A형 행동 가운데 활동성은 성취동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27, p < .001$), 민첩성은 신경증, 성취동기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신경증 $r = .18, p < .01$; 성취동기 $r = .39, p < .001$).

서두름 행동과 A형 행동의 관계

서두름 행동과 A형 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A형 행동의 구성요인 가운데 성공추구, 실패불안, 과제몰입, 민첩성과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공추구 $r = .20, p < .01$; 실패불안 $r = .18, p < .01$; 과제몰입 $r = .33, p < .001$; 민첩성 $r = .30, p < .001$). 즉,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을 추구하고, 일에 대한 몰입과 집중 수준이 높으며, 수행이 민첩함과 동시에 목표달성에 대한 실패불안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A형 행동 구성요인 가운데 과제몰입이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였다.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A형 행동의 구성요인 가운데 오로지 인내부족과

표 3. A형 행동의 구성요인과 신경증 및 성취동기의 관계

	성공추구	인내부족	실패불안	과제몰입	활동성	민첩성
신경증	.08	.33***	.43***	-.08	.06	.18*
성취동기	.52***	.02	.17*	.49***	.27***	.39***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서두름 행동과 A형 행동 간의 상관계수

	성공추구	인내부족	실패불안	과제몰입	활동성	민첩성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20**	.13	.18**	.33***	.04	.30***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09	.24**	.10	-.04	-.06	.08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03	.21**	.12	-.03	.05	.13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20**	.11	.06	.13	.14*	.21**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17*	.19*	.27***	.08	.13	.18*

* $p < .05$, ** $p < .01$, *** $p < .001$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r = .24, p < .01$).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참지 못하는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A형 행동 구성요인 중 인내부족과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1, p < .01$).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성공추구, 활동성, 민첩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공추구 $r = .20, p < .01$; 활동성 $r = .14, p < .05$; 민첩성 $r = .21, p < .05$).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을 추구하고 평소 활동하는 에너지 수준이 높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특성을 보였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성공추구, 인내부족, 실패불안, 민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성공추구 $r = .17, p < .05$; 인

내부족 $r = .19, p < .05$; 실패불안 $r = .27, p < .001$; 민첩성 $r = .16, p < .05$).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을 추구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표 4).

논 의

이전 연구는 실수나 사고로 이어지는 서두름 행동(확인생략행동)과 목표달성이나 수행촉진과 관련된 서두름 행동(성취추구행동)의 특성을 검증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두름 행동의 구성요인에 초점을 맞춰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두름 행동과 A형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두름 행동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A형

행동의 구성요인 가운데 성공추구, 실패불안, 과제몰입, 민첩성과 상관을 보였다. 성공추구와 과제몰입이 각각 사회적 성공, 경쟁과 승리 추구하고 일에 대한 몰입이나 집중을 반영한다. 따라서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사회적 성공을 원하고 일을 할 때 몰입하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두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정해진 실패불안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A형 행동 특성 중 오로지 인내부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거나 참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나 고립감을 주는 환경에 민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두르는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내부족은 신경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이것은 불안이나 걱정과 같은 불편한 심리상태가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심리상태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성공추구, 활동성, 민첩성과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성공과 경쟁 및 승리를 추구하거나 평소 활동 에너지 수준이 높고 일을 할 때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과제 및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공추구와 활동성은 성취동기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민첩성의 경우 신경증과도 관련

이 있었으나 성취동기와 더 큰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심리적 긴장감을 갖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루함에 민감하고 이러한 조건에 대해 서두름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성공추구, 인내부족, 실패불안, 민첩성과 관련이 있었다. 보상기대에 예민하고 보상기대와 관련하여 서두름 행동을 보이는 이들은 사회적 성공, 경쟁 및 승리를 추구하고 평소 일을 할 때 빠르게 움직이지만, 기다리거나 참는 것을 싫어하거나 잘 하지 못하거나 기한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불안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그 동안 서두름 행동의 구성요인이 특성에 대해 언급되었던 의견들이 실제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서두름 행동의 구성요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경험적 자료를 통해 지지하고 있다.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관련이 있는 A형 행동인 성공추구와 민첩성은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고, 반대로 인내부족과 실패불안은 신경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보상기대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심리적 긴장이나 불안과 함께 과업달성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함께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심리적인 긴장이나 불안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두름 행동의 요인 분석 결과 두 서두름 행동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

려 본 연구에서는 불편함과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후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차이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은 성취동기나 과제수행을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박선진과 이순철(2011)의 연구에서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 실수나 사고로 이어지는 확인생략행동의 구성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의 응답자가 20대 대학생이었던 데 비해, 박선진과 이순철(2011) 연구의 주된 응답자는 40대 직장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연령과 조직경험 유무 등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연령이나 취업 상태 등 집단의 특성에 따라 수행촉진을 가져오는 서두름 행동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의 연령과 취업 상태,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는 연구를 통해 지루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A형 행동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서두름 행동의 종류에 따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서두름 행동의 특성을 과제수행이나 새로운 환경 적응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적 압력이 있는 경우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간압력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을 보이는 이들은 사회적 성공, 경쟁과 승리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과제수행을 지시할 때 시간압력을 경험할 정도의 기한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이나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을 보이는 이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잘 참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잘 참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제나 과업을 제시할 때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걱정을 낮춰주는 환경을 형성시키는 것이 과업달성이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서두름 행동의 특성은 과제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 수행을 촉진하고 기한내 적절하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앞에서 언급했던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과 고립에서 나타나는 서두름 행동의 변별, 연령과 취업상태나 조직경험, 직무성격 등에 따라 서두름 행동의 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동우, 박선진, 이순철 (2009). 서두름 행동이 운전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4), 487-505.
- 박선진 (2011). 서두름 행동에 관여하는 개인특성 및 서두름 행동이 과업달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진, 이순철 (2011). 성과 연령에 따른 서두름 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4), 365-380.

- 유창열 (1986). 성취동기 측정척도 개발. *충남 대학교 공업교육연구소 논문집*, 8(3), 10-16.
- 유태용, 민병모 (2001). 다양한 장면에서 수행을 예측하기 위한 5요인 성격모델의 사용 가능성과 한계: 국내 연구결과의 통합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및조직*, 14(2), 115-134.
- 유태용, 이기범, Ashton, M. C.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8(3), 61-75.
- 이순철, 박선진 (2008). 서두름 행동의 심리적 구조 및 특성 파악: 서두름 행동, 확인생략행동, 성취욕구 간의 관계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2), 63-81.
- 조선미, 이형초, 박현진, 서지영, 홍성목 (1995). '빨리 빨리 빨리': 조급성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임상심리학회 95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5-216.
- Dembroski, T. M., MacDougall, J. M., Williams, R. B., Haney, T. L., & Blumenthal, J. A. (1985). Components of Type A, Hostility, And Anger-In: Relationship to Angiographic Findings. *Psychomatic Medicine*, 47, 3, 219-233.
- Eysenck, H. J., & Fuler, D. (1983). The component of type A behavior and its genetic determina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 499-505.
- Glass, D. C. (1977). *Behavior patterns, stress, and coronary disease*. Oxford, England: Lawrence Erlbaum.
- Haynes, S. G., Levine, S., Scotch, N., Feinleib, M., & Kannel, K. W. (1978). Original contributions: The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factors to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Framingham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7, 362-383.
- Jamal, M. (1985). Type A behavior and job performance: Some suggestive findings. *Journal of Human Stress*, 11, 60-68.
- Jenkins, C. D., Zyzanski, S. J., & Rosenman, R. H. (1971). Progress toward validation of computer-scored test for the type A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Psychosomatic Medicine*, 33, 193-202.
- Lee, C., Earley, P. C., & Hanson, L. A. (1988). Are Type as better performe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9, 263-269.
- Muchinsky, P. M. (2003). 산업 및 조직심리학. [Psychology Applied to work]. (유태용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0년에 출판)
- Smith, T., & Ruiz, J. (2002). Psychological influences on development abnd course of cirinary heart diseas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548-568.
- Winderl, M., &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DOTS-R). *Journal of Adolescents Research*, 1(2), 213-320.
- 논문투고일 : 2011. 12. 22.
1차 심사일 : 2012. 1. 2.
2차 심사일 : 2012. 3. 21.
게재확정일 : 2012. 4. 17.

The Relationship between Hasteful Behavior and Type A Behavior

Sun-Jin Park

Soon-Chul Lee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focused on five factors of Hasteful behavior and conducted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he factors with relationship between Hasteful behavior and type A behavior. 207 adults(18-59 aged) answered the Hasteful Behavior Questionnaire and Type A Behavior Questionnaire. 136 items in established type A behavior or type A personality scale were collected. 136 items were reduced to 6 factors and 29 items. The components of Type A Behavior consists of success striving, impatience, failure anxiety, job immersion, activity, quickness. The factor analysis of Hasteful Behavior resulted in five factors. This was consistent in priority research. Each factors of Hasteful Behavior and type A behavior showed positive correlation. Hasteful behavior under time pressure had positive relations with success striving, failure anxiety, job immersion, activity, and quickness. Hasteful behavior under uncomfortable or isolation had a relation with impatience. Hasteful behavior in bordem had positive relations success striving, activity and quickness. Hasteful behavior in expectation of rewards had positive relations with success striving, impatience, failure anxiety, and quickness.

Key words : Hasteful Behavior, Type A Behavior, Neuroticism, achievement motivation